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일시 | 2021. 9. 28.(화) 오전 10:00 (총 3매) | 보도시점 | 즉 시 |
| 담당부서 | 국제협력담당관 | 담당자 | 과장 이용섭 사무관 한대석 |
| | | 전화번호 | 02-2181-0372 02-2181-0373 |

기상청,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협의회 총회 참가

- 2020년 아시아지역 기후보고서 발간, 지역협의회 개편 등 승인

- 기상청(청장 박광석)은 9월 27일(월)~30일(목)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7차 세계기상기구(WMO) 아시아지역협의회* 총회(Ⅱ)에 참가했다고 밝혔다.
 - 이번 총회는 유희동 기상청 차장(한국 수석대표)과 함께, 세계기상기구의 △의장 △사무총장 △아시아지역협의회 의장 △아시아지역 34개 회원국 기상청장이 참석하여 아시아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 - *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협의회: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34개국으로 구성. 총회는 4년마다 열리며,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차례(5월, 9월) 나누어서 개최함
- 이번 회의에서는 △2020년 아시아지역 기후보고서 발간 △세계기상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협의회 개편 △세계기상기구 전략 및 운영 계획의 아시아지역 이행계획 등을 승인하였다.
 - 또, 셋째 날(29일) 「해양 안전 및 역량개발」을 주제로 열린 부대행사에서 기상청은 해양 및 항만 수송의 안전(유승협 해양기상과장)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.

□ 박광석 기상청장은 “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, 이번 총회에서 발간되는 「2020년 아시아지역 기후보고서」는 아태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에 기초자료로서 큰 역할을 할 것”이라며 “빈번해진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공동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회원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”라고 밝혔다.

□ 붙임: 세계기상기구(WMO) 아시아지역협의회 총회 회의 사진



| 세계기상기구(WMO) 아시아지역협의회 총회에 참석 중인 유희동 기상청 차장(왼쪽 첫번째)
(9. 27., 기상청 국제회의실) |